전남도 '녹색에너지 자립 섬' 10곳 조성

진도 가사도·해남 삼마도·여수 하화도 등

371억 투입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력 공급

진도 가사도와 해남 삼마도, 여수 하화도 등 전남도내 6개 시·군 13개 섬에서 '녹색에너지 자립 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디젤 발전기가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섬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전남도는 10일 "국가지원 및 R&D 사업으로 모두 371억원의 예산을 들여 10개 섬에 대해 '녹색 에너지 자립 섬' 사업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진도 가사도 13일 사업 기공식 = 우선 오는 2015년 9월까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의 정부 녹색에너지 자립 섬 실증사업 대상지인 신안군 비금·안좌·팔금·장산도, 진도 가사도, 여수 하화도에 28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태양광·풍력발전 기본설계가 끝난 진도 가사도의 경우 13일 공사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해남군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은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태양광발전설비 140kW와 풍력발전 설비 60kW로, 에너지 저장장치 용량은 1280kW다. 이달중 시설공사가 착공되면 6월께 준공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산면 상마와 중마, 하마 등 모두 3개의 섬인 삼마도에는 모두 92가구 2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발전기인 디젤 발전기 3대를 활용해 1일 16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160kW의 전력으로는 생활가전용 전력 공급에 급급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복 치패양식 등 소득기반 사업을 추진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실제로 삼마도의 1일 최대 전력 110kW를 기록하기도 했다.

군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함께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호남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사업(2012년)과 융·복합기반 신재생 에너지 자립섬 구축 사업(2013년) 등 국비사업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진도 가사혈도에는 30억원이 투입돼 태양광, 소형풍력발전기 시스템 등이 구축되고 있다.

◇민간 발전사도 섬지역 전기생산 =민간 발전사들도 속속 전남의 섬들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 민간 발전사들은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게 된다.

신안군 자은면, 완도군 청산도·노화도 등 3곳으로 자은 주민바람발전소, 코오롱 글로벌 등이 사업을 맡았다. 신안군 자은면에는 1100억원, 완도군 청산도·노화도에는 2600억원이 각각 투입돼 풍력 39MW(2.5MW 16기), 60MW(노화도 육상 20MW, 청산도 해상 40MW) 등 대규모 시설이 올해와 오는 2018년까지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도내에 육지의 전기가 안 들어가 자체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섬은 모두 74곳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비 지원사업은 물론 민간 발전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환경에도 도움에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압해 동초등학교에 도심 학생 몰린다

자연친화적 생태교육 효과

작년 32명서 43명으로 늘어

한때 폐교위기에 몰렸던 신안군 압해도 동초등학교(교장 장성모)에 도심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지난 2012년 폐교 위기에 처했던 이 학교는 지난해 32명이던 학생 수가 올해들어 43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 병설유치원도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다. 전교생의 4분의 1 가량이 목포에서 입학 또는 전학온 학생들이다. 전학 상담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학생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이 불편함에도 이처럼 도시에서 거꾸로 압해 동초교를 찾는 이유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교육과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교사들은 안전과 필요한 물건, 조언 등만을 해 자립심을 키운다.

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방과 후 학교 시간에는 학생 개인 특성에 알맞는 특기적성 교육이 이뤄진다. 장성모 교장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철저하게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에 맞춘 자율중심, 창의적 수업, 다양한 특기적성 등의 교육실현" 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진도 첨찰산 등산로 새단장

진도군이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통제한 첨찰산 등산로>를 새롭게 단장했다.

진도군은 지난 2010년부터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폐쇄한 첨찰산 휴식년제 구간(0.8㎞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군은 첨찰산 넓적바위~정상 구간에 친환경 목재 계단을 설치하고 태풍 피해를 본 편백나무를 재활용해 간이 쉼터를 만들었다. 50여종의 상록수가 우거진 첨찰산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 107호로 지정됐다.

또한 군은 조도면 돈대산과 신금산 위험 구간에 목재 계단을 설치했다.군내면 건배산과 의신면 남망산, 지산면 동석산 등산로 일부 구간의 노후된 로프 3㎞를 전면 교체하고, 방향 이정표와 종합안내판, 흙먼지 털이기 3개소를 설치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봄동 수확하는 아낙들 진도군 들녘에서 주민들이 봄동 배추(일명 떡배추) 출하 작업을 하고 있다. 봄동은 줄기와 잎 부분이 부드러워 생채로 즐기면 한결 맛이 좋고, 된장국이나 나물무침 등으로 요리하면 구수하고 진한 향을 낸다. /연합뉴스

완도 수산고 교직원 '마이스터고 성공' 워크숍

전국 유일의 수산해양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완도 수산고등학교(교장 정귀권)가 최근 1박2일간 신지 명사십리 해초스파랜드에서 성공적인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한 교직원 워크숍을 가졌다. 〈사진〉

이번 워크숍에는 정귀권 교장과 교직원을 비롯해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김환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김정술 완도군의회 의장, 이명준 해양수산부 사무관, 유관기관 단체장, 학부모, 학생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완도 수산고는 수산자원 부국을 선도할 영 마이스터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갖고 항해과·기관과·양식과·수산가공과 등 4개과로 나눠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게 된다.

정귀권 교장은 "모든 교직원들이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하면 된다'는 기본교육에 최선을 다해 미래 글로벌 인재육성과 함께 수산계 명문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전북

정읍기상대·천문기상과학 체험센터 착공

51억 들여 내년 3월 완공

오는 2015년 3월 정읍에 기상대와 천문기상과학 체험센터가 세워진다.

정읍시와 광주지방기상청 정읍기상대는 10일 정읍 기상대〈조감도〉 신축 및 천문기상과학 체험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국비 45억7100만원 등 총사업비 51억여원이 투입되는 정읍 기상대는 오는 2015년 완공목표로 부지 1만4705㎡에 연건평 130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와 광주 기상청은 그동안 협력과 소통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신축부지 확보를 비롯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정차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됐다.

시는 각종 행정절차 지원과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당초 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천문우주공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막혀 기상대 신축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바꿔 성사시켰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상대와 체험센터가 완공되면 기상대 본연의 기상관측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천체관측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로쇠 빨리 마시기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지난 8일 '제26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행사장을 찾아 고로쇠 빨리 마시기 시합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집집마다 특색있는 장류미생물

순창군, 代이어 자원화 하기로

읍·면 메주 수거 연구

곰팡이·효모 등 DB화

순창군이 국내 최초로 가정에서도 대를 잇는 장류 미생물 자원화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순창군 장류 사업소와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는 11개 읍·면 메주를 수거해 각 집마다 특성있는 곰팡이와 효모, 젖산균 분리 연구에 들어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향후 군의 장류 미생물 로드맵으로 만들어져 배포될 예정이다.

장류 사업소와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집집마다 고유의 곰팡이, 고초균 등을 분리해 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특징있는 미생물을 대를 이어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장류사업소에서는 200여개의 시료를 수거해 곰팡이를 분리하고, 미생물센터에서는 고초균과 젖산균, 효모 등을 분리해 나가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분리한 우수한 미생물은 각 가정의 미생물 자원화를 만들어 순창 장류의 차별화와 함께 유·무형 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독서마라톤 대회 참여 하세요"

전주시립도서관

전주시립 도서관은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9월 30일까지 초등학생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마라톤 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4만2195쪽)와 하프코스(2만쪽), 단축코스(3000, 5000, 1만쪽)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대회기간 신청한 양만큼 책을 읽고서 책 제목과 감상 등을 독서기록장에 자필로 작성하면 완주로 인정된다.

목표량을 채운 시민에게는 완주증이 주어지고, 내년에 시립도서관 도서대출 권수가 4권에서 6권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들에게는 학교 독서관련 교과목의 특기 사항란에 독서마라톤 완주내용을 기록해준다. 시공무원에게는 상시학습으로 인정해준다. 독서마라톤 홈페이지(독서마라톤.kr)나 완산도서관(063-230-1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단신

내장산공원사무소,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와 정읍경찰서는 공동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월 첫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선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놀이를 통한 자아 찾기와 공예체험을 통한 미술치유 등 숲 치유 활동을 통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원활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유기룡 탐방시설 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이 행복한 국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전국 목공예대전' 출품작 공모

남원시와 남원 목기 사업협동조합은 4월 12~14일 사흘간 '제17회 남원시 전국 목공예대전' 출품작을 공모한다.

공모작품은 향토성이 있는 전통창의적인 작품의 '창작부문'과 실용적이며 다량생산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실용부문'으로 나눠 접수한다.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시상금 1000만원)을 비롯해 창작부문과 실용부문 총 31개 작품에 총상금 500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4월 17일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수상작은 제 84회 춘향제 기간(5월 2~6일) 동안 춘향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 2단계 공공근로 참여 신청자 모집

순창군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일까지 2014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선발인원은 20명 내외이다. 주요사업은 공공시설 환경정화, 공공서비스 분야 등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중 구직 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주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 성내면 100주년 자료집 발간

고창군 성내면사무소는 성내면 탄생 100주년을 맞아 10일 역사문화 자료집 '100년의 숨결 성내의 역사와 문화'를 펴냈다.

성내면 100년사 편찬위원회 노여열 위원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은 지역주민으로서 문화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 전통문화의 얼과 맥을 계승 발전시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내 고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갑 면장은 "지역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유산의 발전을 위해 행정과 주민이 유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